

# 제4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1.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별적인 관념을 모두 잊고 마음을 비우기 위해 힘쓴다.
- ② 이기심을 극복하고 예(禮)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
- ③ 호연지기(浩然之氣)가 길러지도록 의로운 일을 반복한다.
- ④ 타고난 본성이 교화될 수 있도록 예법을 배우고 실천한다.
- ⑤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보고 시비(是非)를 엄격히 구분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를 심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외부의 모든 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 내부의 의지는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의지를 자연과 일치시키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 ①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성(理性)에 따라 살아야 한다.
- ② 자연법칙을 파악하여 세계의 필연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③ 공적인 삶을 피하고 은둔자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④ 덕 있는 사람은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 ⑤ 완전한 행복은 인격신과 하나가 되는 데 있다.

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일심(一心)이 미혹되어 번뇌가 일어나는 자는 중생이고, 일심을 깨달아 묘용(妙用)을 일으키는 자는 부처이다.  
○ 단박에 깨친[頓悟] 뒤에도 늘 살피서 문득 망념이 일어나도 따르지 말고 덜고 덜어서 무위(無爲)에 이르러야 한다.

- ① 마음 밖에 있는 진리를 찾아야만 돈오할 수 있다.
- ② 계율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야 깨달을 수 있다.
- ③ 바른 선(禪) 수행을 위해 교학(敎學)도 연구해야 한다.
- ④ 습기(習氣)를 모두 다 제거해야만 단박에 깨칠 수 있다.
- ⑤ 화쟁(和諍)을 위해 중파의 특수성을 모두 부정해야 한다.

4. 다음은 근대 서양 사상가의 주장이다. ㉠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우리의 방법은 출발점에서는 회의론자들의 방법과 유사하지만 결론에서는 반대된다. 회의론자들이 감각과 지성의 권위를 완전히 부정하는 길로 나아가는 데 비해, 우리는 감각과 지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한다.  
○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은 개별적인 사례에서 저차원의 공리로,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의 공리를 거쳐 고차원의 공리로 올라간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공리에 도달하는 길만을 따르려고 한다.

- ① 이성의 도움 없이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일반화를 추구한다.
- ② 확고부동한 인식의 출발점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의심한다.
- ③ 삼단 논법을 적극 활용해서 확실한 개념과 공리를 형성한다.
- ④ 자연의 법칙을 파악할 때에는 주로 연역적 추론에 의존한다.
- ⑤ 실험으로 얻은 자료에 지성의 힘을 더해 새로운 지식을 만든다.

5. (가)를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의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법칙뿐이며 주관적으로 보면 그 법칙을 따르겠다는 준칙뿐이다.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도덕 법칙의 주체이다.

(나)

		(A)	
	(B)		

[가로 열쇠]  
(A): 나라가 위급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조직한 군대 또는 그 군대의 병사. 예) 위정척사 사상은 훗날 항일 ○○ 운동으로 이어졌다.  
(B): 맡은 일 또는 맡겨진 일. 예) 공직자는 자신의 □□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세로 열쇠]  
(A): ..... 개념

- ① 실천이성이 부과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명령이다.
- ② 행복을 위해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지의 경향성이다.
- ③ 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의 필연성이다.
- ④ 공익의 실현을 위해 누구나 이행해야만 하는 책무이다.
- ⑤ 세상 어디에서나 그 자체로 유일하게 선한 도덕적 의지이다.

[6~7] 갑, 을, 병은 고대 동양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배우고 묻는 길은 놓아 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良能)이다. 군자가 일반인과 다른 것은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을: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군자는 자기에게서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서 구한다.  
 병: 배움은 예(禮)에 지극해지는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예는 성정(性情)으로 인한 혼란을 바로잡고자 성왕(聖王)들이 제정한 것이다. 군자의 배움은 귀로 들어가 마음에 담기고 소인의 배움은 귀로 들어가 입으로 나온다.

6.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갑은 선악의 판단 근거가 마음속에 내재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사람이 군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 ③ 병은 배움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를 갖출 수 없다고 본다.
- ④ 을은 병과 달리 인격을 닦고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사회 안정을 위해 외면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본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배우고자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道)를 행하고자 하면 날마다 줄어든다. 성인(聖人)은 배우지 않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이 지나쳐 간 곳으로 되돌아간다. 만물이 있는 그대로 있도록 도우며 감히 억지로 하지 않는다.

< 보 기 >  
 ㄱ. 인성을 그대로 따라야 좋은 통치임을 부정하고 있다.  
 ㄴ. 예에 지극한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인위 규범을 버리고 덕으로 다스려야 함을 부정하고 있다.  
 ㄹ.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바람직한 통치자임을 간과하고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8.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덕은 신(神)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이데아는 신의 정신 안에 있다. 신은 종교적 체험을 통해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며, 우리는 알기 위해 믿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고대 사상가는 이데아는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되며, 지혜, 용기, 절제가 조화를 이룬 정의의 덕을 갖추면 이상적 인간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나는 이 사상가가 '㉠'라고 본다.

- ① 신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음을 모르고 있다.
- ② 선의 이데아를 실현하는 삶이 이상적인 삶을 모르고 있다.
- ③ 지혜나 용기는 신에 대한 사랑의 다른 측면임을 모르고 있다.
- ④ 덕은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한 상태를 모르고 있다.
- ⑤ 덕과 일치하는 정신 활동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9.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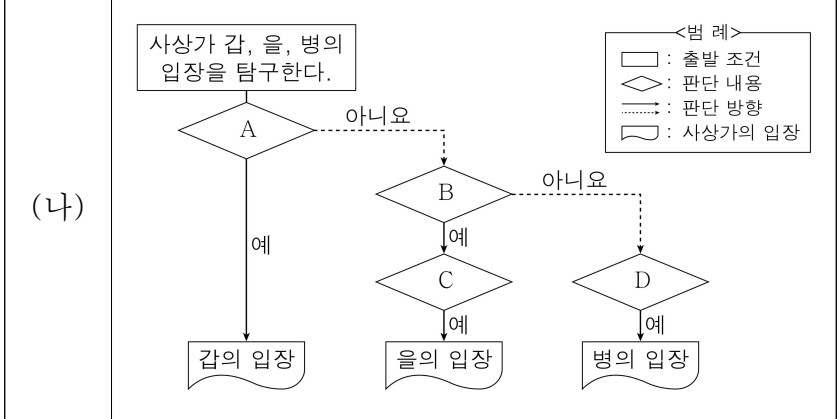
(가) 개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공동체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개인은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나) 개인은 자신의 삶의 방식이 공동체의 역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개인은 공동체와 긴밀히 연관된 일원으로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져야 한다.

< 보 기 >  
 ㄱ. (가): 국가는 신념 체계의 다양성을 허용한다.  
 ㄴ. (가): 국가는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ㄷ. (나): 개인은 공동체로부터 일정한 책무를 부여받는다.  
 ㄹ. (가), (나): 개인은 언제나 독립적 자아로서 존재한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덕은 본성적으로 즐거운 삶과 연결되며,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만일 덕이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덕을 버려야 한다.  
 을: 덕에 대해 알더라도 의지가 나약한 사람은 행하지 못할 수 있다. 덕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으로 나뉘며, 유덕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 있다.  
 병: 덕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부정의하거나 나쁜 행위를 할 수 없다. 덕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유덕한 사람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



< 보 기 >  
 ㄱ. A: 쾌락은 행복한 삶의 본질이자 최고의 선인가?  
 ㄴ. B: 모든 악행은 의지의 나약함 때문에 생겨나는가?  
 ㄷ. C: 행복한 사람이 되는 데 이성의 역할은 필수적인가?  
 ㄹ. D: 지혜의 덕을 갖추지 않은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3

11.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념에 속박된 사람은 외부 원인에 휘둘리며,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나쁜 것을 따르게 된다. 이런 속박에서 벗어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정념을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이 이성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인식이며, 정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만물의 내재적 원인인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 ① 좋은 삶을 위해 모든 감정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 ② 이성은 정념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 ③ 자연의 인과 질서를 초월하기 위해 이성을 계발해야 한다.
- ④ 신을 지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자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 ⑤ 행복을 누리려면 정념 발생의 필연적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

12.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하도록 위임함으로써 국가가 수립된다. 이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을: 사람들의 정치적 복종의 동기는 정부를 통해 평화와 질서가 마련되리라는 이익 관념에 근거한다. 정부로부터 얻는 이익이 사라지면 복종의 의무도 사라진다.

< 보 기 >  
 ㄱ. 갑: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으로 인해 저절로 형성된다.  
 ㄴ. 갑: 국가에 대한 정치적 의무는 구성원의 동의에서 나온다.  
 ㄷ. 을: 국가에 대한 복종은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성향에서 비롯된다.  
 ㄹ. 갑, 을: 국가가 자기 역할을 못하면 정치적 의무는 중단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3.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내 마음의 성(性)은 선을 즐거워하고 덕을 좋아하는 것이다. 덕은 행하는 것이다. 행하지 않는다면 덕은 없다. 인의예지를 몸소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덕이라고 하겠는가?  
 을: 내 마음의 시비를 다할 뿐 다른 것에서 옳고 그름을 찾지 않는 것이 우리 학문이다. 사람 마음의 생생한 이치[生理]가 바로 고유한 덕이며 양지(良知)이다.

- ① 갑: 도덕적 삶을 위해서 인간의 욕구는 제거되어야 한다.
- ② 갑: 사람은 선악의 구별 능력은 없으나 실행 능력은 있다.
- ③ 을: 시비 판단의 근거는 오로지 내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 ④ 을: 사람은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인의예지를 갖추게 된다.
- ⑤ 갑, 을: 사람은 누구나 사단과 사덕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

14. 사회사상가 갑, 을 중에서 적어도 한 사람이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분배적 정의는 일반적 정의의 특수한 사례입니다. 사회적 가치의 불평등한 분배는 그것이 모든 사람들, 특히 최소 수혜자들에게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됩니다.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입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이 곧 정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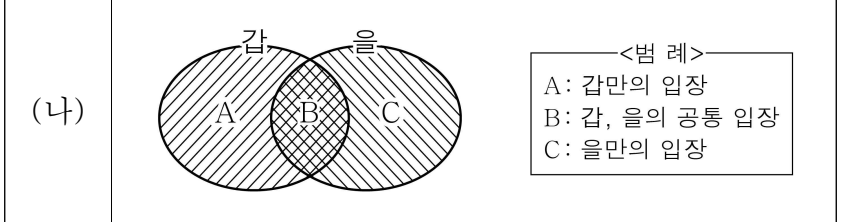


< 보 기 >  
 ㄱ. 정의의 원칙은 복지를 위한 재분배 정책과 양립할 수 있다.  
 ㄴ. 분배 절차의 공정성으로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ㄷ.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재화 분배나 이전에 관여할 수 없다.  
 ㄹ. 정형화된 분배 원칙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지(知)는 심(心)의 본체이고 심은 저절로 모든 것을 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면 저절로 측은해 할 줄 안다. 이것이 바로 양지(良知)이니 밖에서 빌려올 것이 없다.  
 을: 지는 아는 것[識]이다. 나의 지식을 미루어 지극히 하여 그 아는 바가 다하지 않음이 없도록 해야 하며,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려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해야 한다.



< 보 기 >  
 ㄱ. A: 선이 무엇인지 배워야 선행을 할 수 있다.  
 ㄴ. B: 사람은 누구나 도덕 실천 능력을 타고난다.  
 ㄷ. C: 개별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많이 극진해진다.  
 ㄹ. C: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 이론적 학습 과정이 필요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이 근대 서양 사상가 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인간은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나에게 선인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삶의 서사적 통일성을 지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을: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려면 배려의 관계 속에 있는 상대방의 요구와 행동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병: 인간은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군주의 통치에 종속되어 있다. 공리의 원리는 이런 종속을 인정한다. 모든 이해 당사자의 최대 행복이 인간 행위의 옳고 적절한 목적이다.

- ① 갑: 인간의 자연적인 경향성이 도덕의 기반임을 모르고 있다.
- ② 갑: 개인의 성품과 덕성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 ③ 을: 유용성이 행위를 평가하는 최적의 기준임을 모르고 있다.
- ④ 을: 보편성을 지닌 도덕적 원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⑤ 갑, 을: 도덕이 행복 증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17.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섯 가지 집착의 무더기[五蘊]에 얽매이게 하는 감각적 욕망은 불행과 재난을 가져온다. 감각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통찰지[般若]를 갖추어야 한다. 통찰지를 갖추면 불행과 재난을 만나지 않고 번뇌에서 벗어나게 된다.

— < 보 기 > —

ㄱ. 고통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ㄴ. 인간의 현상적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를 깨쳐야 한다.  
 ㄷ. 오온으로 이루어진 실체로서의 '나'를 자각해야 한다.  
 ㄹ. 인연에 의해 생성된 모든 것은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8.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이(理)는 존귀해서 상대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사물에 명령하기만 하지 명령을 받지 않는다. 이의 본체가 무위라는 것만을 보고 묘한 쓰임이 능히 드러나 행해지고 있음을 모른다면 이를 죽은 물건으로 여기는 것이다.  
 을: 이는 무형이고 기(氣)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된다.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이기 때문에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 기가 아니면 발할 수 없고 이가 아니면 발할 바가 없다.

- ① 갑은 이는 오로지 선한 것이며 사단의 근원이 된다고 본다.
- ② 갑은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지만 선으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본다.
- ③ 을은 이는 만물의 근원이며 기가 발하는 까닭이라고 본다.
- ④ 을은 기쁨은 선으로, 슬픔은 악으로 드러나는 정이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사단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선한 정이라고 본다.

19. (가)의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하나의 존재, 그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그 자신을 발명하도록 선고받았다. 을: 실존이란 객관성이 아니고 주관성이며, 보편자가 아닌 단독자이다. 그리고 진리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다.
(나)	_____ ㉠ _____ 그러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

- ① 갑: 모든 것을 신에게 맡기고 신의 명령에 따라 행위하라.
- ② 갑: 감정을 버리고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르라.
- ③ 을: 신앙심이 깊어지도록 세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쌓아라.
- ④ 을: 유일한 실체인 '신 또는 자연'에 나아가 그에게 귀의하라.
- ⑤ 갑, 을: '지금·여기'를 중시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라.

2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사회사상 (가), (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가) 사회주의는 노동자 혁명을 통한 공산 사회의 실현을 추구한다. 노동자 혁명의 첫걸음은 프롤레타리아를 지배 계급으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것이다.  
 (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적 수단에 의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당 독재와 계급 분열의 조장이 없어야 한다.

◎ 학생 답안

(가)와 (나)의 입장을 비교하면, (가)는 ㉠ 모든 생산 수단의 공유를 추구하는 데 비해, (나)는 ㉡ 일정 부분의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 또한 (가)는 ㉢ 비폭력적인 혁명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 데 비해, (나)는 ㉣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가), (나)는 ㉤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